



대한변호사협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주기 평가인증결과 (2012~2016학년도)



2018. 2.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본평가 결과

인증	조건부 인증	한시적 불인증	불인증
●			

I. 종합 의견

-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우수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입학전형계획의 타당성 및 학생구성의 다양성, 교수에 의한 학생지도의 충실성 및 적절성, 학생지도센터 설치·운영, 학생지원, 장학제도의 확보와 장학금 지급 기준의 객관성 및 적절성 분야에서의 평가지표가 양호함. 그러나 입학자 중 사회적 취약 계층의 선발비율 확대 및 학생지도활동에 대한 대학차원의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실무경력 교원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고[실무전임교원 + 실무겸임초빙교원 = 42(환산 48)명], 상대적으로 우수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신규채용 전임교원 중 여성교원 비율’이 높다는 점, 교원들의 수업부담이 적다는 점, 교원들의 연구실적이 높다는 점이 강점임. 다만, ‘특정대학 학위소지자 비율’을 충족하지만, 2/3로서 기준 한계치라는 점, ‘여성교원 비율’을 충족시키기는 하지만, 1.1% 상회할 뿐이라는 점은 개선과제임.
- 강의평가는 모든 교과목에 대하여 시행하며, 강의의 특성에 따라 일반과목, 외국어과목, 응결합과목으로 구분하여 문항을 달리하여 평가하고 있고 강의 평가 우수교수 선정기준에 따라 시상하고 있음. 전체 과목이 강의적합성 기준에 충족하며 대부분 강의적합성 만점에 해당함. 타 법전원과는 달리 법문

서작성의 ‘심화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심화된 법문서작성능력을 배양하도록 배려함. ‘법원 실무 리걸클리닉’이라는 교과목을 개설하여, 서부지방법원 현직판사가 현재 재판 중인 실제 사건을 가지고 학생들이 관련법문서를 직접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강평함으로써 사건 수가 많고 다양하며 현직 판사가 지도한다는 점에서 리걸클리닉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음.

- 3개의 특성화 분야 및 외국어 교과목이 다양하게 개설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과목의 실제 수강인원이 너무 저조함. 평가대상 기간 중 각 학기별로 개설된 교과목의 일부 과목의 수강인원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가 있어 분반 등을 통한 강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음.
- 교육시설 관련하여 필수공통시설 실면적이 학생 1인당 $25.32m^2$ 로 기준치 2배 정도로 확보되어 있음. 모의법정실에 모의법정실 외 판사부속실, 배심원 합의실을 겸비하고 있어 법정을 잘 구현하였고 장애인 배려시설이 강점임. 열람실 확보가 만족스러운 수준이고, 도서관 장서와 컨텐츠가 충분히 구비되어 있음. 사서 가운데 법학석사학위 소지자가 근무하고 있어 학생들의 요구에 대한 조금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함.
- 재정 조달 및 배분의 적절성 평가지표를 구성하는 5가지 평가요소 중 등록금 인상률, 학생 1인당 투자 교육비,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 운영수입 대비 외부자금 비율은 평가기준을 충족하였으나, 등록금 의존율은 평가기준을 불충족함.
- 변호사 시험 합격률 및 취업률의 공시가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자체평가의 실시와 공표가 매우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결과와 본평가 시 개선권고사항을 교육의 질 개선에 잘 반영하고 있음.